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보며 성령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성령의 열매에 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 예수 안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나의 뒷마당에 있는 가지 덩굴에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과즙이 풍부한 블랙베리로 변할 것입니다. 자두나무에는 여름 내내 계속 자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잼과 코블러에 들어갈 작은 새싹이 터져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여름 내내 익어 결국 염소 치즈와 꿀과 짝을 이룰 새로운 과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육의 열매가 우리의 감각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는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목장인 "열매 맺는: 당신을 비우지 않는 영적 수확을 위한 재배"의 저자가 말하는 영적 열매에 대해 맞볼 수 있는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1.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익숙한 미덕들입니다. 외웠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 노래를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날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다소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지 자기 성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열매의 목록은 우리를 위로, 즉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 우리 구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고 완벽하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며, 유일하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지상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셨습니까(25절).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인내하셨고,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는 친절하셨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는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실과 운유와 절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의

인 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 지속하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맞보십시오.

#### 2. 사랑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그것이 실제로는 전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사랑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거나 우리의 감정도 불구하고 취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비록 사랑이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라도(거의 "빠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

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요 15:11-12). 어찌 됐든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 3. 희락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날이 길어진 봄에 야외로 나가 숨 쉬고 싶어집니다. 겨울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는 데 신선한 공기와 햇빛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현실은 상쾌한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사무실, 자동차 또는 침대에 갇혀 있을 때 햇빛을 받으며 빠르게 걷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직장에서나 픽업 라인에서, 심지어 병상 위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면으로 계속)



### 그들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여호와의 증인의 11가지 잘못된 믿음

다음은 ESV Study Bible 부록에 있는 자료들 가운데 여호와와 증인이 믿는 것에 대한 간략한 개요이다. 이 자료는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과 대비하여 실려 있다.

#### 1.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증인은 하나님의 유일한 진짜 이름, 곧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온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GK. Patēr; Matt. 6:9).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전 1:3).  
• 하나님 (Hb. 'elohim; 창 1:1),  
• 전능하신 하나님 (Hb. 'El Shadday; 창 17:1),

• 주님 (Hb. 'Adonay; 시 8:1),  
• 만군의 주님 (Hb. yhwah tseba'ot; 상 1:3).

#### 2. 삼위일체

여호와와 증인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므로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이 사실이지만(사 44:6; 45:18; 46:9; 요 5:44; 고전 8:4; 약 2:19), 성경에서는 세 위격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 아버지 (벧전 1:2),  
• 예수님 (요 20:28; 히 1:8), 그리고  
• 성령 (행 5:3-4).

(9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3면



푸른초장 권혁천 목사 4면



본사방문 황의영 목사 16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매너 | 현금영수증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1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KPCB New York Light Pastoral Mentoring Seminar



일시: 2024년 9월 9일(월)-12일(목)  
장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등록문의: 718-229-0858, 646-361-8992 정도영 행정목사  
E-mail: nymentoringseminar@gmail.com  
대상: 미국과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로써 55세 이하 되는 분(선착순 40명)  
\* 미국내 타주 혹은 해외에서 오시는 목회자의 경우 등록비, 숙박비 및 항공료 전액을 제공합니다.

#### 세미나 내용

1.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 설명
2.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양육프로그램
3.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정착프로그램
4.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시대에 맞는 전도프로그램
5.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목회 철학
6.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7. 목회자 위기관리



#### 주강사: 이종식 목사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M.Div.)
-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 (D.Min. 과정 수료)
-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Honorary Ph.D
- 도미니카공화국 UNEV 대학 교수
- 미주합동 신학교 총장 역임
- CRTS Theological Seminary 분교장 역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장 역임
- 칼넷(CAL-NET) 미주대표
- 도미니카공화국 제자훈련 단체(Siete Ovejas y Un Pastor) 총재
-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1991~



발행인 칼럼

이민 교회 목회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미국으로 오는 한인 이민자가 현격히 줄긴 했지만, 그 일반적인 그림은 늘 이랬다. 이민 가방을 밀고 끌며 미국의 각 고향에 내린 한인 이민자들.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곧 맞닥뜨린 현실 앞에 이민자들은 흔들거린다. 언어, 제도, 재정, 문화, 신분 등 모두가 낯선 상황에서 앞으로 헤쳐나갈 일의 갑갑함을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낼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런대로 잘 나갔었는데라고 낯두리 겸 말을 꺼내보아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듯이 통명한 분위기 속에서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그들 대부분의 주머니에 간직해 놓은 것이 있다. 다름 아닌 교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다. 이민 생활에서 의지할 곳이란 교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민 오기 전부터 귀 아픈게 들었기 때문이다. 힘겨워하는 이민자들을 흔쾌히 맞아주는 것이 이민 교회 목회자요 사모님이다. 아이들 학교부터 시작해서 집, 차, 직장 등을 구하는 일에 도움을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 이민자들에게는 그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종적 편견을 비롯하여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기에 위로도 필요하고 절망에서 일으켜 줄 소망의 메시지도 갈망한다. 이민 교회 목회자들은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갈망을 채워준다.

이민 교회 목회자는 매우 독특하다. 누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뼈를 묻어야 할 동기(動機)는 선명하지 않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낯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게 할 뿐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나의 달려갈 길 다 주가 도로/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나로 그 삼자가 품게 하시니--' 자녀들은 아빠 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고, 사모는 아픔과 상처에 쓰러지고, 자신도 심히 괴롭고 힘들어도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민 교회 목회자. 다른 이민자들처럼 마음먹는다고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하늘 분향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같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미국 땅을 마지막 호흡 때까지 지킬 소망의 자리로 삼아 오늘도 살아가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삼중(三重) 국적자(國籍者).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일구어낸 선교 지경(地境)의 넓이와 깊이는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다양화 세상에 한국 이민 교회 목회자만큼 최적화된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하늘에 이르는 기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 그리고 창의적인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은 물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이민 교회 목회자들은 첨병(尖兵)의 역할을 귀하게 하였고 또 더 멋지게 할 것이다.

이민 교회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회중을 부단히 흔들며 깨우고, 각기 속한 교단에서 그 교단에 주어진 비전을 향해 힘써 달려가고 있다. 그 대부분의 달음박질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논리를 추구하는 교단이나 지도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각 교단의 여러 모임이나 총회를 통해 지도자들은 교회와 교단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필자가 속한 교단도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총회로 모인다. 우리를 미국 땅에 심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 시간 들을 돌아보는 가슴 저민 시간, 새로운 결단을 도모하는 가슴 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다르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신실하게 표현했음을 확신하자

어느 날 저녁,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 교회는 바울의 복음이 초래하는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어느 목사의 영상을 보았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 많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사실 내가 받은 충격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바울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사회적, 윤리적" 복음과 모순되는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 이야기를 새로 만든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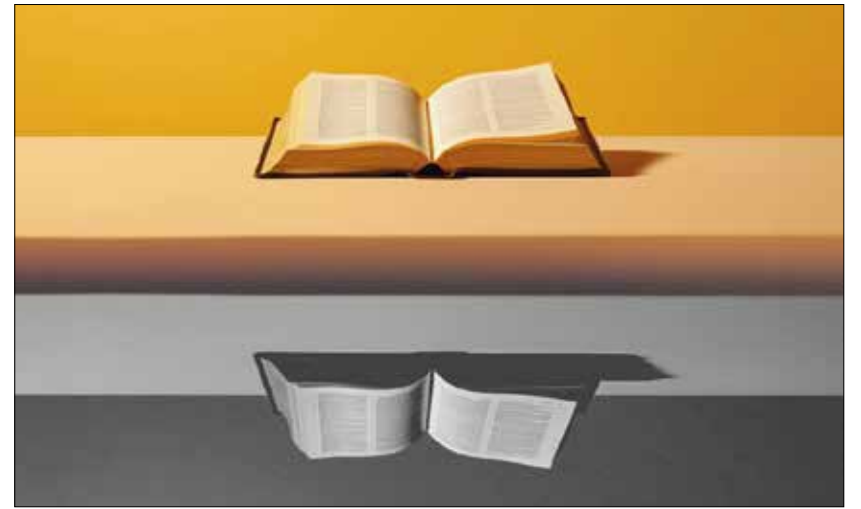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일단 공통 기반을 구축하면 더 쉽게 불일치를 좁힐 수 있다. 한번 솔직해져보자. 사실 복음주의자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보다 바울에게 더 큰 초점을 둘 수 있다. 바울의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복음서 속 서사보다 더 직접적이고 문자적이며 또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 누구나 더 관심을 두는 성경 속 장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신만의 "경전 속 경전"을 만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두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간접적으로 접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설교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한 메시지는 확실히 마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한 내용과 일치한다(막 1:14-15).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은 마가가 그 자신에게 전달된 목적담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간접적이라는 면에서 바울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사회적, 윤리적"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환이라고 정의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가는 1장 1절("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에, 그러니까 사실상 제목에 "복음"이



라는 단어를 넣었다. 이 제목에서 마가는 "복음"을 다름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또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유대인과 로마인의 왕 칭호)로 묘사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1세기 로마 세계에서 "복음"(euangelion)이라는 용어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전기적 서술이 아니었다. 당시 복음의 의미하는 바는 전쟁터에서 신들이 준 승리뿐만 아니라 신성한 통치자의 탄생, 권력 상승, 신성한 권력자가 내리는 법령(예: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칭송하는 프리에네 비문) 등을 의미했다.

동사 euangelizō("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절심인역, 특히 이사야서(예: 사 40:9-10; 52:7-10)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통치자를 타도하시고 당신의 통치를 확립하셨다. 마가는 서문에서 이사야 40:3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그를 왕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했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복음"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 모순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3-11에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가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를 성취하는지 강조한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두 복음" 주장자들이 바울의 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 나타낸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성을 확증한다. 로마서 11:1-7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선지자들의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 결과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바울과 예수님이 피차 동의한다면, 바울은 굳이 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바울은 총 60번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가운데 6번만 "나의/우리의"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심판을 포함하고(롬 2:16),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며(롬 16:26), 신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고후 4:3; 살전 1:5)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는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와 차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바울은 아무런 수식어 없이 "복음"을 27번이나 사용한다. 이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그가 전파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파한 복음과 같다는 그의 이해를 반영한다(행 15:22-30). 게다가 바울은 마가복음 1:1, 1:14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예: 롬 15:19)과 "하나님의 복음"(예: 살전 2:2)을 사용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유언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편적이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년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4년 6월 3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646-708-1101

- \* 신학석사(Th.M.) 김경욱, 김광연, 김성애, 김성은, 김재상, 나일임, 박춘금, 백중술, 손요한, 송영모, 이재욱, 정인수, 정유석, 조용진, 천위지
\* 목회학석사(M.Div.) 김복순, 박정실, 홍기성
\* 선교학석사(M.Miss.) 김선영, 정길표, 지영애, 차동미
\* 신학사(B.Th.) 민준성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성령의 열매에 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1면에서 계속)  
모든 종류의 새로운 힘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됩니다. 기쁨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항상 발견해왔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를 발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 화평은 언제나 임할 수 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것임이다. 당신을 위한. 지금 바로. 당신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당신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계절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안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골 1:20); 그분은 그 평화를 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요 14:27).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3:15)고 썼습니다. 'rule'이라는 단어는 '심판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승리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승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5. 오래 참음은 활발한 것이다.

나는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무기력으로 만지작거리고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 것

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단지 불평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희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롬 8:25).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현재 시즌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도 시간을 아끼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대기실에 갇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6. 자비는 초대입니다.

자비에 관한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마가서 6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자비를 생각해 보면, 자비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평에는 쉽고" 그의 "집은 가벼우므로"(마 11:28-30) 지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친숙한 초대에서, "쉬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번역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자비함은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덜어 주고 그들의 궁극적인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7. 양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의 열매 자체에서 의로움을 찾지 못한 채 선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지적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대신, 우리는 모든 선을 주시는 분께 참된 선의 모든 표현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인내하셨고,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는 친절하셨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는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고 온유와 절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 지속되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맛보십시오.

8. 충성함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상대하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자신의 거룩한 자비로운 본성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에 대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내를 나타내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비롭게 원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때 신실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반만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이를 행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분의 복된 임실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 25:21)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봉사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함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끝나게 됩니다.

9. 온유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발견한 온유함 중 하나는 성경의 정의가 온화함 또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온유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눈점을 키쳐뜨게 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온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모두 그 온유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각할 때 그와 같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10. 절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세상은 "네 마음을 따르라", "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순종이란 순종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제쳐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의 강력한 동맹인 절제의 형태로 도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기본 좋은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y Megan Hill, Melissa Kruger, TGC

### 시론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 [선택적 지각과 인지 부조화] Selective perception and Cognitive dissonance

대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을 믿지 않는다. 심리학에서 추론하는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은 어떤 정보를 인간이 수용할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인식체계와 일치 혹은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론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진술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출생하였다는 성경의 진술은 과학의 분석적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다. 만약 이러한 진술을 인간의 기존인식체계로 받아들인다는 전제로 귀결한다 해도 그것은 '허구'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의 객관적인 도구가 성경이어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즉 인간의 이성, 합리성의 기초인 인식체계와 불일치하는 것들이 과학적 진술 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것도 있다. 태도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둘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신앙의 자기합리화라고 지칭할 것이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성경(태도)과 행위(행동)에서 불일치가 파생하면 성경에 행위를 맞추기 보다는 행위에 맞게 성경을 해석 또는 적용시키려고 시도한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거나 변형될 수밖에 없다.

선택적 지각과 인지 부조화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내린 결론이다.

He decided to break the engagement quietly(New Living Translation). "가만히 풀고자 하여"(마 1:19).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다.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May it be to me as you say(Bible in Basic English).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으로 선택적 지각과 인지 부조화가 파괴되는 그 지점에서 고백하는 진술과 행위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불일치로 인해 주저앉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선명해졌다.

www.epipodo.com

###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다르다?

(2면에서 계속)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갈 1:11-12)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곧 예수님의 왕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마 24:14; 26:13; 막 13:10; 14:9; 눅 24:44-49).

예수님과 바울의 통일된 복음은 오늘날 교회에 어떤 영향

을 미쳐야 할까?

먼저, 우리는 행여라도 내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과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편향성이 있는 건 아닌지 또 특정 장르와 저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건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표현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의 개념과 언어는 구약성경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완벽하게 계시하신 통일성 있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66권의 책을 맡겼고, 초대교회는 이 모

든 책을 기록고 정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나란히 두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계시의 일부를 풀겠다는 교만에 빠져서 인간의 이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성을 소위 말하는 성경적 논쟁에 악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더 중시하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by Donny Ray Mathis II, TGC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세례기도: 오후 09:00 세례기도화: 오전 05:45</p> <p>Tel: (718) 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estchester,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ikbc.org 14 Gres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셋새마녀교회</h4> <p>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516) 620-2004, www.gcmny.org 2008 5th St, East Meadow, NY 116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718)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p> <p>Tel: (516) 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화: 매월 첫주 금요일 오후 8:00</p> <p>Tel: (718) 706-0100, www.nyc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5:55(월-토)</p> <p>Tel: (718) 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화: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화: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08 5th St, Hicksville, NY 11707</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진교인문학세미나: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9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40분 세례기도: 매월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세례기도화: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3387, sb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r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vo.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장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화: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ci S.Paulo CE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A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 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화: 오전 5:30(화-토)</p> <p>Tel: (808) 858-185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나무별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 목사의 묵상

##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게 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의 주재시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

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증거로 성경을 보면 여호수

아는 날이 어두워지면 다 이겨 놓은 전쟁을 끝낼 수 없으니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 홍해가 열렸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니 15년이란 세월을 연장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된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때는 아주 느끼지 못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번주 목사의 묵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기도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상상한다. 그래서 기도하고서는 그런 변화가 없음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서서히 열려달라고 기도하니 홍해가 열렸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이 듣고 계시다는 느낌도 없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 처음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삶을 변화시키는 큰 바람이 되면 드디어 느끼게 된다.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여, 오늘도 기도한다. 이 기도도 역시 어느 날 돌풍을 몰고 올 바람이 될 것을 믿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자! 삶에 조용한 혁명을 기대하며...”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내 경험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분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요한 정적 가운데 나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억지로 상상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제가 갖고 온 문제들을 하나, 둘 털어놓는다. 그리고 답을 구한다. 여전히 주위는 조용하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의자들 위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앉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실을 떠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아주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래서 기도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볼 수는 없어도 어디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인 나는 성도들로 기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하고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 권혁천 목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공식은 변함없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수학에서 원의 면적=3.14X반지름의 제곱 같은 것이다. 원이 크든 작든 이 공식을 적용하면 언제나 원의 면적을 알아낼 수 있다. 신앙 생활에도 그런 공식이 있다.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것. 뜻밖에도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의 공식을 10대 소년 다윗의 입에서 듣는다.

블레셋 민족은 고대 크레타 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신 2:23) 그리스 본토 사람들의 침략으로 섬을 떠나 팔레스타인의 해안에 정착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예루살렘 서남쪽 14마일쯤 떨어진 엘라 골짜기에서 두 민족이 맞붙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웠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블레셋의 장수였다. 이스라엘에는 그를 상대해 싸울 사람이 없었다. 40일째 골리앗은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싸울 놈 나와 봐!”였을 것.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언덕에 처박고 꼼짝도 못했다. 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보다 더 컸던 왕 사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전쟁터에 다윗의 순위 세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가 참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세는 아들들의 형편이 걱정이스러웠다.

막내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조금 들려주어 형의 안부를 살피려 보낸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도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10대 이었음에 거의 확실한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자신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한다. 이 말은 즉시 사울왕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라 지시한다. 혹시 하는 기대가 역시 하고 무너지지 않았을까? 얼굴은 붉고, 키는 작고 그만한 아이였다. 머리가 아플 때면 종종 불려서 수급을 연주하게 했던 아이였다. 한심했을 것. 사울이 신음처럼 말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었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삼상 17:33) 너 저 블레셋의 거인과 싸우기에 너무 어리다.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34-37절에 기록된 다

윗의 대답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아버지가 양을 맡겼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 보면 사자나 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떼를 구해냈었다. 사자나 곰을 이겼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어린아이가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윗은 그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니 아무리 위험한 싸움도 다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그의 물뿔들 솜씨를 믿었을까?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37절의 말씀이 핵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다윗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일이다. 그랬더니, 다시 건지실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해졌다. 다윗이 가르치는 인생의 공식이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

(Remember, then you can expect!)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원칙인지 성경은 반복해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다. 처음부

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던 이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바로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한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바로는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10가지 재앙이었다.

하루아침에 그 푸르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강가에 서나 볼 수 있었던 개구리가 음식그릇에서 이불 속까지 튀어나온다. 이가 온 몸에 달라붙어 괴롭게 하고 하늘이 까맣도록 메뚜기가 날아왔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재앙의 마지막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일이다. 그랬더니, 다시 건지실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해졌다. 다윗이 가르치는 인생의 공식이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

다.

일러주신 대로 재앙이 임하기 전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틀에 발랐고 죽임의 천사는 그 집을 건너갔다. 이 재앙을 예고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칠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3-14) 그렇게 생긴 절기가 유월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전쟁에서, 나라와 개인을 위협하는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의 기대 이상 그들을 도우셨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읽는다. 다윗 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도우심을 받고 살아났을까? 아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 앞에 주어진 까닭은 이 일들로 우리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살아온 인생을

공식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모진 고생을 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그를 찾아와도 능히 감당하고 일어났다. 큰 믿음의 용사다. 그의 마음에 같은 믿음의 공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는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3-25) 성찬예식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이 구원을 얻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도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가르쳤다.

기념, 영어로 remembrance라고 번역한 이 말의 어원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의 이야기로 확인해 보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은 바로 이 기억과 기대가 아니었을까?

불확실한 시대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확실한 한 가지를 마음에 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먹이셨으며 내 환란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건져내셨다. 이 기억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기대가 확실해진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삶의 분명한 공식,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Remember, then you can expect!) 가슴에 새길 믿음의 공식이다.

hyouk@msn.com

# 믿음의 공식

## 사무엘상 17:31-37

절이다.

왜 명절로 만들어 지키라고 하셨을까? 기억하기 위함이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할아버지가 되어 애굽에 살아보지도 않은 그들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 일을 말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장자의 재앙뿐이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를 가르쳤는지,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는지,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렸던 만나의 이야기기는 하지 않았겠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도 전했을 것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강하고 분명해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했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로 골리앗 앞에 섰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대에 어김없이 다시

신중하게 돌아보면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누군가는 3단 이민가방 몇 개와 수중에 단 몇 백 달러로 이국의 삶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한 유학생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고 직장을 주셨고 내 사업을 주셨다. 그 부족한 실력으로 공부를 마치게 하고 누구도 부러워할 인생을 살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직장을 갖고, 집과 자동차를 소유했고 고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중한 병에 신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널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았던가?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 믿음의 변하지 않는 공식 ‘기억하면 기대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풀어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모든 복이 있다(시84:4).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북한을 보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불쌍해져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다. 영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얼마나 파멸해졌는지 보라.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박물관 같은 명소가 되었고, 성전 강대상을 배경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밥을 먹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유가 복잡하지만 간결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모습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고 있음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할 따름이다.

**볼품없는 뚝배기 같아도**

교인들 중에는 쉽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있다. 그 결과 교회를 경홀

흔은 죽기 때문이다.

예배같은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예배에서의 삶은 죄인으로 사망안에 사는 것이다. 생존이며, 연명하는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한 성도의 삶은 참 생명, 새로운 꿈이 있는 삶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스스로에게 자유의 자가 주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전인 교회를 향하고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로 피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손대대로 가르쳐 질 때, 자손대대로 예루살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 어머니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용서가 있고 자비와 사랑이 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고, 축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 배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축복의 원리이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 친히 셋팅해 두신 것이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죄를 없애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쁨지고 좋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인생과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 예배를 먼저 성공해야 한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공력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을 드려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한가지 예배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복이 없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되었기

늘날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유명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너무 훌륭하신 지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없어지고 선교, 혹은 교육, 다음세대 등등만 주장하니깐 선교도 교육도 어떤 목회적 목표를 이루는 이벤트로 전략해 버린 것을 본다. 구제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연말 자선 행사용 사진찍기에 다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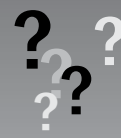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되므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고갈되면서, 선교지도 자연히 치명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음세대를 생각하면서 허용했던 많은 문화적인 도구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가 된 것을 본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잊어 버린 채, 의무감에서 행하던 구제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어렵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일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하였지만, 성경을 읽으려 하면 이상하게 졸리고 지루합니다. 성경이 귀한 줄 알지만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읽을 수 있을까요?  
- 토랜스 곡집사

**성경의 귀중성**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 쉽게 대했기에 성경의 귀중성, 진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전 1: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둔단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Active 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한번 크게 부딪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50대 초의 명문 대학 출신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생활도 안정되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여보, 내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어요? “그래 뭐 네? 우리 주일에 교회갈이 가져, 다른 부부는 다 같이 교회 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부인은 또 자기 소원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느냐? 말해보라, 당신이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창 1장 1절부터 새빨간 거짓말로 여겨졌습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등 읽을수록 거짓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인의 정을 들어주기 위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구약 중간쯤 오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참 이상하다 점점 관심이 깊어지는 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사경회에서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시점에 와서는 “이러한 예수를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없는데 오직 한가지 성경만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삶의 표준이 됩니다. 성경은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진실한 친구이고 현명한 상담자이고 충실한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평소 조용하지만, 가슴에 불을 일으키고 머리에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 은총이 흐르는 책이요 신비의 책입니다.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는 혁명의 책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기드온 협회 총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내에 결실을 보려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에 결과를 원하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영원의 결실을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성경에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2) 매일 매일 의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3) 약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거는 목회, 예배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 이것 외에 더 집중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할 일은 없음을 깨달아 알면서 초점 맞추어야 한다.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되지, 굳이 몸이 갈 필요가 있는냐고 핑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복된 신앙생활은 기준이 분명하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린다.”는 사상이다. 이것이 우리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말시대, 단순한 복의 원리**

-교회 사랑, 예배 회복-

히 여기고 마침내 복된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 교회와 세상은 비교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시132:13-15).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성전을 귀히 여기며, 성전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온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성전 생활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침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늘 교회에만 붙어 사는 볼품없는 뚝배기 같은 인생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런 존재이다. 주님의 교회에 먼저 쓰임 받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일평생 주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어, 교회와 함께 진행된다. 교회와 함께 끝나는 삶이다. 실제로, 유아세례로부터 장례예배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로와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 천국과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아오는 축복된 곳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

복의 문을 여는 곳이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 천국과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아오며, 들어오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누리 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삶은 파멸하고 거칠어 지며,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맹지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살기위해서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모든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 온갖 죄악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나고 일이 자라 고 열매가 맺히며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허기지고 고통스런 인생을 따스이 품어주시고 복되게 양육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교회와 예배앞으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예배, 신앙의 사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기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가정과 여러 처소 등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인식하면서 다시 교회로 모이는 본질을 잃지 말고 회복해야 한다.

에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삶에 복이 없다. 그러나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고 승리할 때, 인생은 비로소 능력과 권세의 총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의 연약함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워지고, 하나님과의 불화가 인생의 불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지혜도 얻게 된다. 유한한 이 땅의 생명,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땅의 시간을 아끼는 복있는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지혜가 예배가운데 들어 있다. 교회안에 있다. 교회와 예배를 내려놓고서 어떻게 성도의 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예배중심 본질목회의 회복**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여보면, 대부분 예배에 목숨 건 귀한 간증 스토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은 오

았다. 선교도 살아나고, 구제와 전도 교육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버리면 무엇이든 할 때마다 힘이 든다.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오래된 기계가 둔탁하게 굴러가는 모습이 되고 만다. 사역의 현장들도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누리는 관계의 회복, 교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길을 찾고 열어가게 가장 우선순위를 알고 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배 없는 사역, 예배 없는 헌신은 참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 될 뿐이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예배회복의 목소리가 들려움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그 내용들이 예배 형식의 전환 혹은 문명기기의 활용을 통해, 외려 교회중심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것도 보게 된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예배 스타일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본다. 성경적인 예배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예배로 가까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파괴시키는 것도 목도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한시간, 정한장소의 예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회의 앞선 이들과 목회자가 죽도록 예배를



#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

말레이시아 하면 많은 분들은 이슬람 국가로서 신학교나 기독교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적 활동이 전무한 곳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선교가 필요한 국가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전체 인구의 60%가 말레이 종족이며 국가에서는 말레이인들은 무슬림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슬림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숫자로 셀수 없지만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s) 이고 부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숨

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에 파문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자신들끼리 소규모로 모이거나 점조직으로 성경공부와 예배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법으로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시아 땅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금하며 그들에게 선교하는 일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

로 시인하는 영적인 부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인들을 대상으로 지혜롭게 전도하는 담대함이 표면 밑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들의 부흥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40%가 중국계, 인도계와 다양한 민족의 디아스포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내 헌법으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와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과 다양한 봉사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신앙인들은 매주 뜨겁게 예배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소규모로 교제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어, 타밀어, 미얀마나 네팔어 그리고 따갈로그로 예배하는 회중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으로 모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난민을 돕는 지역과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바른 신앙의 성숙함을 확인하는 쓸쓸한 재미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굴지의 신학교가 여럿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학위를 받은 재원들이 즐비한 교수진 외에도 현지에서 공부한 좋은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체계도 제법 잘 잡혀서 양질의 목회자를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워낙 말레이시아 신학교가 동남아시아에서 타 국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학위를



받고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물론 인가 없이 성경학교 수준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도 여럿 있지만, 그곳도 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들 배출하기에 적절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영적인 부흥은 많은 현지 목회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평신도들을 적절하게 복음의 도

구로 세우기는 모습이 한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을 보는 듯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슬람을 능가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볼 수 있고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최악의 폭우, 슬픔에 잠긴 브라질 위해 기독교 구호단체 나서

브라질의 최남단 히우 그란지 두 술 (Rio Grande do Sul) 주에 지난달 29일(현지 시각)부터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지며 사망자 140여 명, 이재민 62만여명(14일 현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섰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는 지난 8일, 폭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 수도 포르토 알레그레에 긴급재난대응팀(DART) 직원들을 급파했다. 지난 11일과 1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구호 대응센터에서 긴급 구호물자를 실은 항공기를 브라질에 보냈다. 해당 항공기에는 개인용 여과 장치, 위생용품, 태양열 전등, 담요 등이 포함된 구호 키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마리안퍼스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면서 140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라며 “하루 최대 1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과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마리안퍼스는 황폐화된 지역들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실항민과 가족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 지역 교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마리안퍼스의 대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 예보가 나오고 있다”며 “재난으로 인해 삶이 황폐해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모로코 지진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던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Operation Blessing)도 브라질 폭우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오퍼레이션 블레싱 배치 담당자 다니엘 카스트로는 13일 현장 보고 영상에서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겨 가족들은 지붕만 보일 뿐이고 댐도 무너져 80만명 이상에게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며 “재난 구호팀이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시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구호팀은 피난민들에게 태양열 전등과 구호 식량을 보급하는 한편 열악한 대피처에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퍼레이션 블레싱 측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그들이 혼자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 유럽·북미 조력자살 급증... 교계 “생명 경시 우려”

유럽과 북미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제화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치병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력자살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계 전문가들은 생명경시 우려를 지적한다. 조력자살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료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물 등을 투여해 스스로 죽음을 맞는 방식을 의미한다.



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라넨 의원이 제안한 조력자살법 개정안은 20만명 넘는 서명을 얻어 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영국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기 위해 의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트린 보트랑 프랑스 노동·보건·연대 장관이 조력자살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지난 3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BBC에 따르면 리엄 맥아더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 의원은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자살’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자살을 결정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망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연방 구성국 가운데 최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 제한을 폐지했으며, 네덜란드도 지난해 나이 제한을 없앴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도 2016년, 뉴질랜드는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한국은 어떨까. 현행 법체계에서 조력자살을 포함해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다만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은 허용하고 있다.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인공호흡기 착용과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조력자살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계에선 탈종교 흐름이 뚜렷해지고 성경의 메시지가 약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김동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2일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죽음에 대한 직접적 선택을 인간이 내리는 데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UMC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후폭풍...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8년 만에 개최

한 총회 후폭풍이 거세다. 교단 헌법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데 이어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까지 삭제한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한 항의 성명과 함께 일부에선 교단 탈퇴 조짐도 보이고 있다.



9일 미 현지 교계언론 등을 종합하면 UMC 아프리카 대의원들은 총회 직후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UMC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단의 친 동성애 행보에 반발해 온 아프리카 지역 대의원들은 “총회가 아프리카 대의원 25%에 대해 제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며 UMC 본부가 총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성애 이슈로 UMC를 탈퇴한 목회자들 주축으로 출범한 글로벌감리교회(GMC)는 총회 이후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2년 5월 출범한 GMC에는 현재 40여개국 4000여 교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UMC를 떠난 교회는 75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와 감리회 기록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 일부 감리교 유관단체가 성명을 내고 “한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 연합감리회와 더는 함께할 수가 없다”며 UMC와의 교류 중단을 촉구했다.

## ‘재정 파탄’ 파키스탄의 선택, 모든 국영 기업 민영화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2029년까지 실행할 국영기업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해 논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모든 국영기업은 이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적자를 기록하는 국영기업은 털어내는 게 남세자 세금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전략적 국영기업과 관련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초 적자 국영기업만 민영화한다고 밝혔었는데, 모든 국영기업으로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IMF 협상단은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파키스탄 정부와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장기 확대금융제도(EFF)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2억3000만명의 인구 대국 파키스탄은 지난해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가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를 맞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결국 자력으로 회생할 힘을 잃었다.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했지만 지난해 IMF와 중국 등 우방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적자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권고했다. 파키스탄의 적자 국영기업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 대외 채무 규모는 지난해 7월 기준 1000억 달러(약 136조8500억원)에 달한다.

## 美, 中 전기차·반도체에 50~100% 슈퍼관세...바이든 무역전쟁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철강·배터리와 레거시(구형) 반도체, 주요 광물 등 핵심 전략 산업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과 저가 제품 과잉 생산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적용, 대중 무역 전쟁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통상 압박을 최대치로 늘리면서 미·중 갈등이 재차 심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14일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고, 인위적인 저가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넘쳐나게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초강력 관세 대상을 전기차·철강뿐만 아니라 구형 반도체, 태양광 전지, 주요 광물, 크레인, 의료 제품 등 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예고된 대로 기존(25%)의 4배인 100%로 인상한다. 자동차·가전 등 전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내년까지 50%(현행 25%)로 높인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전지 관세는 올해 안에 25%에서 50%로 인상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천연흑연·연구자석 등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을 저지하고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미국 우선 보호주의’를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기존 첨단 반도체 중심의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백악관은 범용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조치가 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블룸버그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백악관은 대중국 수입 물량이 적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현행 7.5%에서 25%로 대폭 인상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등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핵심 경합주 노동자를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 이 내용은 박홍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1장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 (1)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쓰인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평강과 유익을 주기 위해 형식화된 기도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 적합한 기도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문을 기도자의 마음과 뜻 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빛이나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도문 사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각각의 마음에 주신 빛을 사용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전제로 빠지게 되고, 결국 무신론으로 전락하도록 만든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지만 기도의 형식을 만드는 것은 사람인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떤 형식으로 기도할지는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이런 질문의 추론에는 모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주시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설교할 모든 내용을 제공해 주셨고 이를 설교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목사들로 하여금 설교문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님과 같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1. 그러면 형식화된 기도문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1)

1) 성경에 형식화된 기도문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 성령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구약에 기도문들이 있지만, 구약의 기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셨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성경상 전혀 다른 것이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활동했던 거룩한 사도들은 모든 교회나 개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 결코 성령의 감동을 사용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기도문을 만드는데 특별한 성령의 도움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기도문 사용의 주장은 기도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의 복과 도우심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에 위배된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흉내 내거나 성경의 표현들을 발췌한 것으로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도일 수 없다. 물론 고리적으로 안정된 기도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도문도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자신을 위해 기도문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기도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믿음과 기쁨과 사랑의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사용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

3) 기도문을 만들 때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이나 복음에 의해 만들어진 규약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일 뿐이며,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4) 형식적인 기도문의 기원과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유익을 두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도문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도문 없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의 성장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양 떼 중에서 병든 양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를 열매이게 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어떤 평안함이나 유익도 줄 수 없다.

둘째, 그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형식화된 기도문의 사용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외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 형식적인 기도문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간구할 수 있었는가? 심지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찌르는 선과 악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이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기도 이외에는 영혼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참된 신자들인 척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명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기도문 사용은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고백했어도 신실하게 회심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만일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조명이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도 형식적인 기도문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만일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는 그들이 행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의무이다.

youns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닥칠 때

성품치유 세미나에 어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막내아들이 사춘기 때 이단에 빠져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짊어진 채 일상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 동안 어디에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아들이 죽은 4월이 되면 깊은 우울감에 휩싸여 자살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치유과정이 시작되자, 이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슬픔을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고 아픔을 표현하며 상처를 슬퍼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들의 이름을 아주 작게 부르다가 곧 소리를 높여 대성통곡했습니다. 급기야 밤새도록 바다를 치면서 "내가 나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지!"라고 애절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슬픔을 표현하고 나서야 그 어머니는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를 찾아와 그 후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다섯번째 단계는 바로 상처를 구체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면 그 기만행위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열망, 충족되지 못한 발달과 감정, 욕구들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감정과 기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번째 단계는 내 잘못이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내 탓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픔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을 뿐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 단계는 수치심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상처 난 내면 아이는 자신이 결함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짓 자아로 참 자아를 덮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참 자아는 고립되어 외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외로워하는 진짜 나를 만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하면서 내 안의 성장하지 못한 어린 자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감정, 행동 대신 의지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를 향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가세요.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의탁하면서, 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동안 내가 기쁘지 못했던 원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 그래서 참 슬프고 외롭고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동안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긍정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상처에서 멀어지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California,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주도권 위임”

인간은 극히 사회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존재라고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주장은 맞는 말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주장임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주도권을 가지려 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쟁취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인간의 기질은 그 사람을 분발시키고 신분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주도권은 작게는 가정에서의 주도권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서로 주도권을 가질 것 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 논쟁할

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 주도권이란 권력은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 파괴를 가져 오기도 하지요. 특히 주도권의 영향력이 큰 가정에서는 가족 형제간에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언론이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도권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

회 모든 집단 간에서 그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국가라는 큰 조직체 안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심각하고 피비린내가 날 정도입니다. 국가 안에서의 주도권 논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앙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주도권을 논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주도권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주도권의 논쟁은 자기 주도권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각자가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주도권의 쓴 뿌리의 시작입니다. 그릇된 주도권 다툼이나 논쟁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인생의 성공을 만끽하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주도권 위임>을 터득해야 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 행사를 즐기는 리더십을 가진 작은 종입니다만, 최근 어떤 일을 계기로 온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내 삶의 주도권 행사를 우리 주님에게 위임해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 보리라' 다짐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위임해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결단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주도권 위임>을 선언한 후에 이상하리만치 행복한 시간표가 만들어 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던 내

고 계획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인생의 성공을 만끽하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주도권 위임>을 터득해야 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 행사를 즐기는 리더십을 가진 작은 종입니다만, 최근 어떤 일을 계기로 온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내 삶의 주도권 행사를 우리 주님에게 위임해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 보리라' 다짐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위임해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결단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주도권 위임>을 선언한 후에 이상하리만치 행복한 시간표가 만들어 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던 내

인생과 사역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에게로 위임해 드림의 축복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주도권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미래가 열리리라 믿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에 나갈 때 빈틈없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계획하며 제 주도적으로 사역을 기획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위임하기로 한 지금은, 한없는 심적 자유와 영적인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결단을 하고 보니, 너무나 귀한 결단임을 알게 되었고, 널리 알려 드리고 싶은 작은 사명감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도권을 위임하고 <주도권 위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제35회 동요합창경연대회 성황

대상 은혜한국학교, 최우수상 남가주풀러턴한국학교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회장 백기환) 주최 제35회 동요합창경연대회가 11일(토) 오후 4시 은혜한국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은혜한국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백기환 회장은 “동요합창경연대회는 팬데믹이 끝난 작년에 다시 재개 되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더 많은 학교들이 참석했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우리 꿈나무들에게 힘껏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환 LA총영사는 “동요합창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한글학교 관계자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K푸드, K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의 근본은 한글이며 이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라 말하고 “한글학교에

서 사명감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쳐주신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숙 부회장 사회로 열린 동요합창경연대회는 17개 한국학교 합창단이 참가했다. 특별히 네바다주 리노한국학교, 아리조나 CTCC, 뉴멕시코한국학교에서도 참가했으며 이들 학교의 합창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날 수상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은혜한국학교, △최우수상: 남가주풀러턴한국학교, △우우수상: 사랑의한국학교, △장



제35회 동요합창경연대회가 은혜한국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려상: 베델한국학교, 한국순교자성당한국학교, △하음상: 웨스트힐스 한국학교, 선한목자교회 한국학교, 샌디에고 새소

망한국학교, 테메큘라벨리 한국학교, △인기상: 샌디에고 한빛 한국학교, 미라클랜드한국학교, 서부열린문한국학교, △

지휘자상: 김윤선(샌디에고한빛한국학교), 반주자상: 이유선(사랑의한국학교) (박준호 기자)

그들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1면에서 계속)

이 각각의 세 위격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다. 다음과 같다.
• 편재하심 (시 139:7; 렘 23:23-24; 마 28:20),
• 전지하심 (시 147:5; 요 16:30; 고전 2:10-11),
• 전능하심 (렘 32:17; 요 2:1-11; 롬15:19), 그리고
• 영원하심 (시 90:2; 히 9:14; 계 22:13).
더욱이, 세 분은 각각 우주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다.
• 아버지 (창 1:1; 시 102:25)
• 아들 (요 1:3; 골 1:16; 히 1:2), 그리고
• 성령 (창 1:2; 욥 33:4; 시 104:30).
성령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가 있음을 가리킨다(마 28:19; 참조 고후 13:14).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확증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3. 예수님

여호와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여호와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대천사 미가엘로 창조되었으며, 비록 그가 능력이 있지만 한 단계 아래의 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이시며(요 1:1; 8:58; 참조, 출 3:14)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한 본성을 갖고 계시다(요 5:18; 10:30; 히 1:3).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사 43:11을 딛 2:13과 비교; 사 44:24을 골 1:16과 비교; 사 6:1-5을 요 12:41과 비교). 예수님 자신이 천사들을 창조하셨고(골 1:16; 참조, 요 1:3; 히 1:2, 10)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히 1:6).

4. 성육신

여호와와의 증인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했다고 믿는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총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골 2:9; 참조 빌 2:6-7)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총만”이라는 단어(Gk. plērōma)는 총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신성”(Gk.theotēs)은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와 속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속성을 육체 안에서 구현하신 총체이시다. 실제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 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마 1:23; 참조, 사 7:14; 요 1:1, 14, 18; 10:30; 14:9-10).

5. 부활

여호와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부활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영이 아니라 살아서 된 몸을 갖고 계심을 주장하셨다(눅 24:39; 참조, 요 2:19-21).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활 후에 자신이 진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셨다(눅 24:30, 42-43; 요 21:12-13). 이 사실은 그를 육체적으로 만진 제자들에게 의해 확증되었다(마 28:9; 요 20:17).

6. 재림

여호와와의 증인은 재림이 1914년에 이미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미래의 재

림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일 것이며(행 1:9-11; 참조 딛 2:13), 전우주적 차원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흔들림이 뒤따를 것이다(마 24:29-30).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계 1:7).

7. 성령

여호와와의 증인은 성령이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령은 인격의 세 가지 주요 속성을 다 갖고 있다.

- 마음 (롬 8:27),
• 감정 (엡 4:30), 그리고
• 의지 (고전 12:11).
더욱이 성령을 지칭할 때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행 13:2).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인격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
• 가르치심 (요 14:26),
• 증언하심 (요 15:26),
• 위임하심 (행 13:4),
• 명령을 내리심 (행 8:29),
• 중재하심 (롬 8:26).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다(마 28:19).

8. 구원

여호와와의 증인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조직(즉 그들의 종교)과의 연합, 그 조직의 규칙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규칙에 대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갈 2:16-21; 골 2:20-23). 구원은 신자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베푸심(은혜)에 기초한다. 선행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열매나 결과이다(엡 2:8-10; 딛 3:4-8).

9. 두 종류의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와의 증인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믿는다. (1) 기름부음 받은 반열 (144,000명), 이들은 천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2) “다른 양들”(나머지 신자들), 이들은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운명이 기다린다(요 14:1-3; 17:24; 고후 5:1; 빌 3:20; 골 1:5; 살전 4:17; 히 3:1).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새 땅에서도 거할 것이다(벧후 3:13; 계 21:1-4).

10. 비물질적 영혼

여호와와의 증인은 인간이 비물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영혼”은 단순히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력은 몸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의 핵심 의미 중 하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살아남는 인간의 비물질적 자아이다(창 35:18; 계 6:9-10). 믿지 않는 자들은 의식적인 재난 속에 있지만(마 13:42; 25:41, 46; 눅 16:22-24; 계 14:11), 신자들은 천국에서 의식적인 행복 속에서 살 것이다(고전 2:9; 5:6-8; 빌 1:21-23; 계 7:17; 21:4).

11. 지옥

여호와와의 증인은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평범한 무덤이라고 믿는다. 악인은 멸망한다. 즉, 의식이 없어짐과 동시에 영원히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지옥은 의식적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실제 장소이다(마 5:22; 25:41, 46; 유 7; 계 14:11; 20:10, 14).

by Justin Taylor, TGC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내 머리 둘 곳은

예수님의 말씀, “머리 둘 곳이 없다”(눅 9:58) 하는 구절이 계속 떠오릅니다. ‘머리 둘 곳’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한 시기관에게 열린 이 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눅 9:58, 마 8:20) 왜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자에게 격려를 하지 않고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가지고 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은 아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은 쉼터, 보금자리, 안식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어

디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집 한 칸 없는 가난한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느 곳도 머리 둘 곳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오직 하나님 보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 성령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머리를 두고 편히 쉬지 않으십니다. 나는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아닙니까? 여우처럼, 공중의 새처럼 세상에 나의 보금자리, 나의 안식처를 만들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영원히 쉴 곳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영원한 분향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 계신 그곳이 내 머리 둘 곳입니다. 지금도 내가 편히 쉴 곳, 내 머리 둘 곳은 영의 세계, 오직 아버지의 품입니다. bible66@gmail.com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청소년센터 2024 목회자 컨퍼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뉴욕가정상담소와 뉴욕청소년센터(AYC)는 5월 20일(월) 오전 11시 CTS 뉴욕 방송국에서 2024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문의: 646-618-1012, 718-279-1313

## 뉴욕지구교회협의회 싱글맘스 데이 콘서트

뉴욕교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5월 23일(목) 오후 7시 DMOS Manor 에서 뉴욕지구교회협의회와 함께하는 싱글맘스 데이 콘서트를 개최한다.

▲ 문의: 총무 유승례 목사 (845) 848-2013

## 영생장교회, 장학생모집

영생장교회(담임 정승환 목사) 영생장교회는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종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영생 다음세대 지도자, 영생 일반, 영생 디모데, 영생 지역사회이며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이고 장학금 수여식은 8월 7일(수)에 연다. www.yspcscholarship.org 또는 info@yspcscholarship.org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215-542-0288

##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5월 25일(토) 소바자회, 6월 1일(토) 대바자회를 2024년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선교바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6월 1일(토)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703-941-4447

## 퀸즈한인교회, 제 5회 뉴욕신학세미나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6월 10일(월)부터 11일(화) 오전 9시에 채경락 교수(고신대 설교학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며 '목회적 강해설교 작성법 로마서 실천 적용'의 주제로 제 5회 뉴욕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672-1150

## 뉴저지한인목사회, 선교집회 개최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중국 목사)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미니카 산티아고 지역에서 선교집회를 개최한다. 12일(수)에는 현지 도미니카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13일(목) 김중국목사 14일(금) 홍인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829-743-3730



리폼드총회신학교 특별세미나 정성구 박사의 강의 후 사진촬영 했다

## 리폼드총회신학교, 정성구 박사, 특별세미나 "존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 및 삶"

리폼드총회신학대학/대학원 (총장 김용익 박사)은 5월 13일(월) 오후 6시30분 은혜주신교회(노영민 목사)에서 정성구 박사를 초청하여 "존 칼빈의 종교 개혁과 신학 및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과 신학"의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이풍삼 목사(부총장) 사회로 시작 때, 기도 김영환 목사(목사회증경회장), 특송 이계자 사모, 김용익 목사(총장)의 강사소개로 진행됐다.

정성구 박사는 '리폼드가 무엇인가'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존 헤셀링 박사는 리폼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형식을 바꾼다"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리폼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박사는 40년 전부터 운영한 세계 유일의 한국 칼빈 박물관을 소개하며 "유럽의 박물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의 높은 수준이고 고대문헌 1500~1600년대 자료도 가득하다"며 "지난 3월 1일에는 칼빈박물관을 모교인 총신대학에 기증하고 기증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강의를 통하여 1500~1600년도의 리폼드 자료로부터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어거스틴등의 자료와 함께 한국의 위대한 스승인 박정용, 박윤선 그리고 주기철, 손양원, 이기선 목사들의 순교자료를 소개했다.

정성구 박사는 "이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명이 있다. 리폼드 사상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든 순서는 김명옥 목사(목사회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한민국 통일 건국교회 회장 권영해(전국방장관)를 대신하여 정성구 박사는 6.25 참전 유공자 박근실, 강석희, 김성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홍현숙 기자)

## 연합과 친교 축제·종합우승 뉴저지한인목사회

### 제16회 미동부지역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미동부지역 한인목사회는 5월 13일(월) 오전 8시30분 프란크 골든 공원에서 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 주최 '미동부지역 연합체육대회'가 개최 돼, 뉴저지한인목사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뉴욕지구한인목사회, 뉴저지한인목사회, 필라델피아한인목사회, 메릴랜드역자회가 참가했으며 축구, 배구, 족구 등 3개 종목으로 경기를 펼쳤다.

경기에 앞서 한준희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기도 공간 목사(메릴랜드 목사회 회장), 설교 김명옥 목사(뉴욕 목사회 증경회장), 축도 김중국 목사(뉴저지 목사회 회장)로 진행됐다.

김명옥 목사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영혼구원하는 데로 행하고 영혼구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관호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연합과 친교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종목별 우승팀과 MVP는 다음과 같다. △축구: 1위 뉴욕, 2위 뉴저지, 3위 필라델피아, MVP 강창훈 목사(뉴욕) △배구: 1위 메릴랜드, 2위 버지니아, 3위 필라델피아, MVP 최영 목사(메릴랜드) △족구: 1위 뉴저지, 2위 뉴욕, 3위 필라델피아, MVP 신철웅 목사(뉴저지).

다음 연합체육대회는 필라델피아한인목사회가 주최로 진행 된다. 이병은 목사(필라델피아한인목사회 회장)는 "이번에 뉴욕이 준비를 잘해주었다"라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며 "내년 필라델피아한인목사회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모든 순서는 이종명 목사(뉴욕교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제16회 미동부지역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사진

## 동부지역, VBS(여름성경학교)

2024년 아이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멋진 기회 VBS(여름성경학교)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VBS(여름성경학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홍현숙 기자)

### 알림

다음 신문은(5월 25일 자) 본지 발행인 및 직원들 교단총회 참석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실시간 게재 됩니다. www.chpress.net

##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 1(수)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이성숙 목사) 010-9013-0693
- 2(목)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 4(토) 오전 Special Event Program
- 5(주) 저녁 원주 새비전교회(강성대 목사) 010-3976-1530 / 연락 정민철 목사
- 6(월) 저녁 대구 산동교회(임재현 목사) 010-2693-0091 주회 : 그루터기부흥사회
- 7(화) 오후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은 목사) 010-2296-0675
- 8(수) 오후 논산 아름다운기독교원(원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 9(목) 오후 송주 반석기독교원(원장 고관은 목사) 010-2391-3004
- 9(목) 오후 서울 삼정호텔 (1부) 김수용 목사 가정 감사예배 (2부) 한기부 증경회장단 MT
- 9(목)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신학포럼 주회 : 사단법인 누가선교회(대표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 9(목) 저녁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 9(목) 저녁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 10(금) 저녁 서울 누가선교연합교회(김성만 목사) 연합회(아성회) 010-6230-5530
- 12(주) 저녁 서울 송파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14(화) 오후 오산리 최자실목사(기독교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황국현 목사) 010-7754-8291
- 15(수) 오전 남서울중앙교회(장영순 목사) 수도전기공학교육원(실내체육관)
- 15(수) 저녁 엘리자베스교회(원장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 16(목) 오전 이천 축복교회(담임 강은숙 목사) 010-3670-8999
- 16(목)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장사명 목사) 010-8331-3431
- 20(월) 오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10-7291-3377 주회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 20(월) 저녁 일본(JAPAN) Narita공항 도착
- 20(월)~21(화) 일본(JAPAN) 동경신학교(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 22(수) 일본(JAPAN) 동경 사랑의교회(나라타 지역) 정스대만 선교사
- 23(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천 전도성회(우에노지역) 사랑의교회(김태실 선교사)
- 23(목) 밤 한국(KOREA) 도착

- 29(수) 저녁 대구 초대교회(장영순 목사) 010-2296-0675
- 31(금) 오후 주회 : 글로벌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태은 목사) 010-2296-0675
- 31(금) 오후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효목로) Fax. 02)401-7770

교회	일정	주제	문의	비고
뉴저지장로교회	6/15, 22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314-397-8913	영유아유치부
	6/26~6/28			유초등부
뉴저지초대교회	6/21~6/23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201-767-0400	
뉴저지온누리교회	6/21~6/23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201-461-4010	연령 2-4
	6/28~6/30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뉴저지갈보리교회	6/24~6/28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732-613-4930	
뉴욕장로교회	6/27~6/29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718-706-0100	
뉴욕센트럴교회	6/27~6/29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516-387-9940	
베이스айд장로교회	6/27~6/29	Friends of God	718-229-0858	
퀸즈장로교회	6/27~6/29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718-886-4040	
영생장로교회(필라)	6/16~6/19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213-435-7997	
보스틴장로교회	6/25~6/27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978-857-2006	
와싱턴중앙장로교회	6/17~6/21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promiseland@kcpc.org	
벤엘교회(MD)	6/24~6/28	SCUBA(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sunjungryo@bethelchurch.org	

## 한미총교회, 제21회 효행상 시상식 개최

### 올해부터는 행사에 앞서 예배 드려

한미총교회(회장 임형빈 장로)가 주관하는 제21회 장수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가 5월 11일(토) 오전 11시 디모스(구 대동연회장)에서 45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인동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999년 시작하여 팬데믹 동안 3년을 제외하고 21회를 맞이한 효행상 시상식은 그동안 많은 담임 및 이사 목사들이 수상자를 추천하여 교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설교자 조원태 목사(뉴욕우 리교회)는 "한미총교회는 어찌 면 우리에게 효를 가르칠 마지막 세대의 보루일지 모른다. 이

런 의미에서 한미총교회가 동포사회에 보이지 않는 방파제"라고 전했다. 예배 사회를 본 임용수 목사는 "효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고 또한 복음이다. 한미총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효의 사상이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지기를 거듭 축원을 드린다"고 했다. 시상식을 통해 △장수상: 이희준 △효자상: 이광민 △효녀상: 정미령, 우연수 △효부상: 김춘형 △장수한부상: 장개영, 오기만 △효행학생상: 정종은, 신요한, 립사론 등이 상을 받았다.

2부 시상식이 최윤희 권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 장로는 "



한미총교회 효행상 시상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나라에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어른 공경하는 정신이 투철하여 본이 되는 고귀한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있었다"라며 "점점 훌륭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1999년 한미총교회를 조직하고 지

금까지 21회째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그레이스 맨 연방 하원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해온 훌륭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인사했다. 또 린다 리와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그리고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 갈보리선교교회 창립 43주년 특별영성집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창립 43주년 특별영성집회에서 박영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 창립 43주년 특별영성집회가 ‘항상 존귀한 일을 굳게 회자(시 32:8)’라는 주제로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박영기 목사(신 샬브로 성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카리스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 사회로 11일(토) 오후 7시에 열린 둘째 날 집회는 김인찬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갈보리 남성중앙단이 특별찬양했다. 이날 박영기 목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전 2: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영기 목사는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어 올해 만 40년째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한 뒤 “사람이 넘치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기도해주고 키워주는 교회이며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했다. 그

리면서 그는 “이러한 교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기복 속에 놓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복음을 증거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셋째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넷째 항상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심상은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한 뒤 박영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장원철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 유스타파운데이션 주최 100세 시대를 위한 힐링세미나

“치매는 뇌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유스타파운데이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태정신상담 및 치료센터(APCTC)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100세 시대를 위한 힐링 세미나”를 5월 11일(토) 남가주 새누리 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와 12일(주일) 뮤리에타 갈보리 사랑교회(담임 허평강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린 첫날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은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박사가 치매예방에 대하여 강의했다. 장원철 박사는 “치매는 뇌에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50년대 1200만명 치매환자가 발생할 것이고 29초마다 치매환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치매는 뇌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워 되는 것을 말하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혈관성 치매”라 설명한 뒤 “치매는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것을 녹여주는 약이 개발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약을 사용한 뒤 환

자의 상태가 호전된 보고가 된 적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로는 현미밥, 야채, 콩 종류, 식물성 오일, 김치 등을 먹는 것이 좋고 생선, 닭요리, 그리고 기름기가 없는 육류 섭취가 좋다. 그리고 술은 와인 한 두잔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사로 나서 ‘노인성 우울증’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12일(주일) 행사는 아태정신상담치료센터(APCTC) 한인 프로그램 담당 이미지 디렉터가 노인성 우울증 세미나 강의를 했으며 세미나 장소에는 건강 정보 부스도 마련됐다. 또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참석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으며, 아태정신상담치료센터(APCTC)에서도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치료와 신청방법을, 그리고 시디스사이나이 암센터 아워리치에서는 암예방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안내했다.

〈박준호 기자〉



지니 장씨가 북토크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KFAM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린

지니 장 신간출판기념 사인회 및 북토크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에서는 지니 장(버지니아 열린문교회)의 신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K-드라마의 힘: 소속감, 치유 그리고 정신 건강에 관한 강력한 교훈(How K-Dramas Can Transform Your Life: Powerful Lessons on Belongingness, Healing, and Mental Health)” 출판 기념사인회 및 북토크를 7일(화)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3Thyme 카페에서 개최했다. 이날 북토크에서 지니 장 씨는 “한인커뮤니티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는 평범하게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숨기려고 한다”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마음과 정신이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치감으로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 씨는 참석자들과 함께 이 책에서 다뤘던 K드라마의 내용들을 함께 보며 책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참석자들과 함께 K-드라마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 차이는 물론 문화차이와 언어차이가 있는 만큼 K드라마 등 한류문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련 사역에 이 책이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K-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사인회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다문화적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 5월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 열려

5월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가 5월6일 저녁 실리콘밸리장로교회(담임 김종호 목사)에서 열렸다. 실리콘밸리장로교회와 연합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유기은 목사(원보이스 미션)가 ‘하나님의 부흥을 원치 않는 요나(은 4:10-11)’의 말씀으로 요나의 말씀에 비추어 북가주에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다. 이어 김종호 목사



연세대학교 개교 기념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세대학교 개교 기념 조찬기도회 개최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최계희)는 지난 6일 애너하임 소재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연세대학교 개교 139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회장 최계희 권사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서문준 수석부회장 대표기도, 재무 신서영 권사 성경봉독, 김승필 동문 바이올린 특별연주와 권영대 목사가 지휘하는 여성합창단 특별찬양 후 새찬양교회 담임 최우진 목사가 ‘진리와 자유’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국과 평화와 발전을 위해 김기동 목사,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 박종대 목사,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황선철 장로, 우리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권기숙 회장이 각각 기도했으며, 방하성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장, 김

영숙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의 축사 후 총무 김철 목사 광고와 지용덕 목사 축도 순서가 있었다.

이날 90세가 가까운 여성동문과 여성장로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우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전파를 위해 세워진 학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갖게 한다고 했다. 이 사장 정요한 목사는 “우리는 어쩌면 모교 연세대학교에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 일년에 한번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미주연세조찬기도회)

도를 할 것을 도전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자들이 많아질길 소원하며 기도했다.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는 2009년부터 15년간 매월 지속된 교단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 중보기도 모임으로, 매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저녁 7:30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다음 기도회는 6월 3일(월) 뉴라이프교회에서 열린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KAPC 제48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제48회 총회를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150 Anza Blvd, Burlingame, CA)에서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 문의: (650)342-4600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및 김홍철 목사 위임식 남가주든든한교회는 6월 2일(주일)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김홍철 담임목사 위임식을 갖는다.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이며 김홍철 목사 위임식은 오후 3시에 갖는다.

▲ 문의: 213-481-2779

#### 선사인종독전문사역원 중독예방을 위한 세미나

선사인종독전문사역원(대표 김영일 목사)이 주최하는 중독 예방세미나가 ‘중독, 더 이상 외면하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6월1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A연합교회(3470 Wilshire Blvd, #300, LA)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40(책, 자료 및 간식 제공)이며 5월31일까지 이메일(sonshineforu@gmail)로 등록하면 된다.

▲ 문의: (213)696-7770

#### 제1회 플라선교회 박사동문회 선교음악회

제1회 플라선교회 박사동문회 주최 선교음악회가 6월9일(주일) 오후 5시30분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선교음악회에는 재즈피아니스트 이선형, 랜디 김, 잔 박,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 정종원 목사, 구현화 사모, 수어전문가 김은정 씨가 출연한다.

▲ 문의: (818)383-7926, (626)437-0045

####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오렌지카운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는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을 위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6월2일(주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갖는다. 이번 성가합창제는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감사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나침반교회, LW한인커뮤니티교회, OMC합창단, 카이로스남성중창단 등이 참가한다.

▲ 문의: (714)306-5288

####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14회 사랑의 콘서트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14회 ‘CMF 사랑의 콘서트’를 18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개최한다. 출연진으로는 Charis Christian Chamber, 소프라노 이효정, 그리고 배우는 자매가 함께 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음악회로 꾸며진다.

▲ 문의: (714)733-3566

#### LA 113기 ‘아버지학교’ 열린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에서 개최하는 LA 113기 아버지학교가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LA 총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info@fatherschool.org(아버지학교 미주본부), (206)334-2008(김기섭 운영위원장), (818)549-9191(총현선교교회)

#### 은혜의 강 연합감리교회 가정 세미나

은혜의 강 연합감리교회(담임 김태호 목사)는 이경식 클레어 몬트 신학교 부총장을 초청하여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란 제목으로 가정 세미나는 26일 주일 예배 후 개최된다. 이경식 교수는 이날 ‘예수의 시선으로’(누가복음 19:1-10)란 제목으로 주일 설교도 맡는다.

▲ 문의: (714)870-9991

#### 새생명선교회 작은교회 목회자 후원 영성세미나

새생명선교회(대표 김은형, 이사장 주성기)는 고 박희민 목사 소천 1주기를 기념하여 2024 소령교회 목회자 후원 및 영성세미나를 20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강준민 목사, 노창수 목사, 최정욱 목사, 김태형 목사, 민종기 목사, 김한요 목사, 이상훈 총장이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하게 된다.

▲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 OC목사회 주최 은퇴목회자 위로의 날 행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는 은퇴목회자 위로의 날 행사를 20일(월) 오전 11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갖는다.

▲ 문의: (714)313-5535, (909)975-1260

#### 샌프란시스코 가스이미지 정기공연

샌프란시스코 가스이미지(God’s Image, 단장 엄영미)가 오는 5월 25일(토) 창단 21주년기념 정기공연을 ‘Perfect Love(완전한 사랑)’라는 주제로 캠벨 헤리티지(Heritage) 극장(1 W. Campbell Ave. Campbell, CA)에서 오후 6시30분에 갖는다. 공연 입장료는 무료이며 공연 헌금 전액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식수가 없는 아프리카에 식수로 쓰일 물품을 건설해 주는 일에 사용된다.

▲문의: (650) 685-4489



북가주중보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 김종호 목사와 찬양팀





### “교회 분열은 부끄러운 역사” 한교총 연합 뜻 재확인

#### 연합의 목적은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중현 목사)이 1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연합운동 공로자 초청 오찬’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재다짐했다(사진). 행사엔 각 교단 증

경총회장을 비롯해 연합기관 증경회장, 교단별 총무 등이 참석했다.

장중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과 교리 문제로 분열을 거듭한 한국교회 역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 설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영화롭게 하소수서’란 제목으로 전했다. 이 감독회장은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한기총과 한교연이 남아 있다”며 “가능한 통합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감독회장은 “연합의 목적은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자”며 연합기관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 “작은 도서관으로 새 가능성 발견하라”

#### 예장백석 14일 과천소망교회에서 특수사역 세미나 개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역으로 작은 도서관이 소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14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소망교회(장현승 목사)에서 개최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현장 특수사역 세미나’에서다.

세미나에서는 이우수 경기도 시흥시 하늘꿈교회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목사는 “개혁 초기부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할 정도로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반영된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틈새 사역이 넘쳐난다”며 독서문화사업 예술문화사업 학습 및 돌봄 사업 평생교육사업 기타교육사업 등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돌봄사업 관련 공모가 쏟아져 나오리라 전망한 이 목사는 “지자

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 관련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공모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들어가 우리 지역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비법을 전했다. 밀알심장재단 회장 이정재 밀알선교교회 목사는 NGO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소개했다. 1987년 설립된 밀알심장재단은 37년 동안 전 세계 24개국 4800명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이정재 목사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NGO와 함께 사업을 하듯 지역 교회도 NGO와 함께한다면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백석 총회 미래위원회 위원장 윤재천 목사는 “교단 산하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는 9월 제47회 정기총회에서 법인협의회가 정식 기구로 설립된다면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분당우리교회, 부모님과 함께한 성년식 “빛나고 순결한 삶을 살거라”

#### 이찬수 목사 “감사로 성년의 첫날을 시작하라”

“감사를 아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나를 낳아서 이만큼 수고하여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로 성년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13일 오후 교회 성년식에 참석한 19세 청년들에게 이같이 권면했다. 이 목사는 “주님 안에

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씩은 세상을 씩지 않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도록(청년들을) 응원하겠다”며 화이팅으로 영상 축사를 마쳤다.

분당우리교회 성년식은 1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회 대학부 전통 행사다. 친구 연인 등과 기념하는 일반 성인식과 달리 이 교회 성년식은 부모님과 함께

한다. 이날 성년식은 2005년생 청년 78명과 이들 부모님 112명이 참석했다. 성년식은 ‘스물, 담대히 걷다’(엡 3:12)란 주제로 진행됐다. 성년식 주인공은 새나기와 부모님 모두였다. 찬양사역단체 ‘빨간약’의 축하 공연 이후 새나기 청년들은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직접 쓴 감사 편지를 각각 읽었다. 빛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의미로 부모님들은 자녀들 손에 은반지를 끼워준 뒤 ‘CCM 요계벳의 노래’로 자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청년부 담당 교역자인 임예창 목사는 “청년이 된 이들은 이제 다음세대가 아닌 지금세대로 살아간다”며 “새나기 청년 모두가 재정 정서 신앙의 독립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기도하겠다. 청년들을 섬기며 청년들과 함께 지어가는 대학부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탄압받는 미얀마 카친족 위한 기독병원 건립하자”

#### 한국아세안친선협회, 미얀마 현지에 병원 건립 추진

한국아세안친선협회(KAFA·이사장 홍정길 목사)가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친족을 위한 기독병원 건립 지원에 나섰다. KAFA는 지난 12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생명의빛에수마을 교회(하홍 목사)에서 카친기독병원 건립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KAFA에 따르면 카친족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다. 이들은 주로 미얀마 최북단, 중국과 인도 접경의 고산지역에 집

단 거주한다.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다 군부의 핍박 등으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 카친주에서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는 평균 2624명에 이를 정도다. KAFA는 현지 카친침례교단(KBC)로부터 2차 진료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전해 듣고, 밀알복지재단, LAMP메디컬에이드 등과 함께 건립 비용 모금에 나섰다. 목표 금액은 30억 원 정도다. 현재

카친침례교단은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카친주 미찌나에 병원을 건립 중인데, 총건립비의 50%는 카친족이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외부 설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지만, 최근 불안한 정세로 환율과 자재비가 급격히 올라 내부 설비와 의료기기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홍정길 목사는 “카친족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한 경험, 카친주를 방문해 그곳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교계 지도부와 깊이 교제한 경험을 통해 카친족을 향한 소명의 확신을 얻었다”며 “병원 건립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AFA는 병원 건립을 통해 KBC와 협력하며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자립과 발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성기 KFA 이사는 “병원 건립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다”며 “병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현지에 복음 메시지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 “종교계 시설·인력 활용하면 저출생 극복 도움될 것”

#### 기공협, 저출생 극복 관련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기회부(가칭)로 격상시키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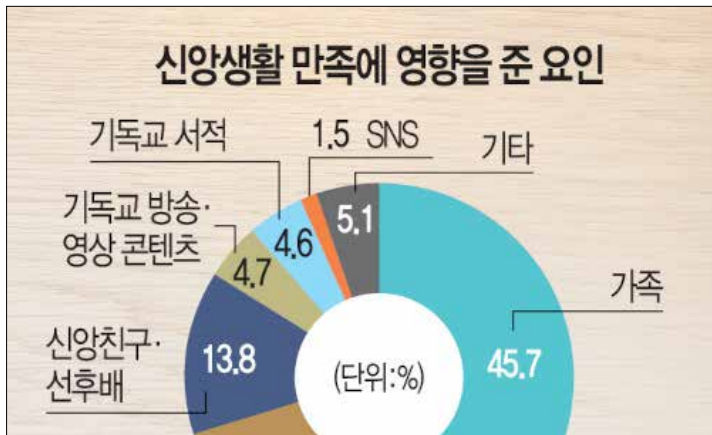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책임자를 구상하라는 시일 안에 수석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보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

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공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비

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조치를 조직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또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기공협은 이 같은 취지로 지속해서 정치권에 출산 및 돌봄 시스템의 민간 적용 확대를 제안해왔다. 기공협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 돌봄 민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신앙생활 만족에 영향 준 요인은 키크보다 가족”

#### 더벨로우십코리아, 대안 위해 세대별 개신교인 2000명 설문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크리스천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정 신앙 여가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10% 포인트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리스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신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다음세대를 타깃으로 한 신앙교육 등 교회사역의 출발점이 깊은 신앙을 지닌 부모·조부모를 비롯한 가정의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정의힘은 지난달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각 세대가 지닌 신앙과 생활의 실제적 필요와 관심을 조사했다. 청년(만 19~34

세), 장년(만 35~49세), 중년(만 50~64세), 노년(65세 이상) 등 4개 연령층(그룹별 500명)으로 구분한 조사에서 노년층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90.8%였다. 청·장·중년층(77.4~83.8%)보다 평균 10% 포인트 높았다. 노년층은 특히 교회 내 정기적 봉사(42.4%)나 매일 기도생활(55.9%), 십일조 생활(75.1%) 등 신앙 생활의 세부지표에서도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현신도를 보였다. 한국교회 성장·부흥기를 경험한 ‘은혜의 세대’인 노년층의 영성과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눈길을 끄는 건 노년층 중에서도 신앙이 견고할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과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앙 1단계(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51.9%인데, 4단계(가장 성숙한 단계)에서는 83.3%였다. 노년 크리스천의 주요 신앙 관심사에서도 ‘성령충만과 영적 성장’이 20.1%로 최다였다. 타 연령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1순위로 꼽았다. 든든한 신앙의 선배이자 믿음의 전수자 역할이 부각될 만하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가족(4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회자(24.6%), 신앙친구·선후배·멘토(13.8%), 기독교 방송·영상콘텐츠(4.7%), 카카오톡 등 SNS(1.5%) 등의 순이었다(1순위 기준). 또 ‘신앙심이 좋은 시절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청·장년층은 부모(57.0%)를, 중·노년층은 목회자(5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신앙 성장이 영상이나 미디어 등 간접적인 수단보다는 가정과 교회 등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도 읽힌다. 동시에 젊은세대를 신앙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선 부모세대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 예장합신·탈북민교회 “함께 ‘복음통일’ 이루자”

#### 일대일로 서로 연결돼 북한 복음화·통일선교 위해 동역하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 산하 교회들이 탈북민교회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하고 통일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로 했다. 예장합신은 지난 9일 총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소속 7개 교회와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회장 정형신 목사) 소속 7개가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 사랑채플(김형석 목사)에

서 자매결연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장합신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총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북기총 소속 탈북민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연합해 북한의 복음화를 함께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거주 탈북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기로 마음을 모았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5)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과테말라에서 한인 선교사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 선교사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바로 와서 자기 프로젝트를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는 우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우리들과 상의하여 일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대부분 두번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온 선교사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한국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과 연합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과테말라의 교회와 선교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이런 지적은 과테말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과테말라는 멕시코의 남부와 연결되어있는 나라로서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약 1088만 헥타의 땅에 1,85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 70위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마야 문명의 중심지로서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300년 동안 받았으나 1821년 9월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24개의 다른 언어가 있는 나라이다. 다양한 부족들이 있어서 선교적인 도전이 많은 나라이지만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이곳에 선교사로 왔던 카메룬 타운젠트는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번역선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성경번역사역을 감당하여 왔다. 이곳에 1956년 선교사로 왔던 랄프 윈터는

신학훈련이 기숙사에 들어와 정규 신학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성장하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어 TEE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찾아가는 신학훈련의 모델을 만들었고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유명한 성경주석을 하고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의 거성인 스코필드가 만든 CAM (중앙아메리카선교회)에서 시작한 SETECA 신학교는 2024년 95주년을 기념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한 학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만큼 과테말라는 개신교 선교의 모델이 되어왔던 곳이다.

미국의 선교 노력이 과테말라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고 다양하며, 종교, 사회, 교육 및 의료 분야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 걸쳐 있다.

1. 미국의 선교 노력은 과테말라에서 기독교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다양한 교파를 대표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 전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언어로 성경과 다양한 종교 문서를 번역했다. 이는 과테말라에서 개신교 교회의 설립과 개신교가 주요 종교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2. 미국의 선교 노력은 과테말라의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들은 종종 빈곤을 느끼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빈곤층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들은 주택, 위생,

농업, 직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많은 지역사회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3. 미국 선교사들은 과테말라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투자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종합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4. 미국의 선교 기관과 교회는 과테말라의 취약한 지역사회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선교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을 도왔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을 개선하고 취약한 인구에게 고통을 덜어주었다.

미국선교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의 국가적 사회적 문제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 사회 불평등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30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총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66만 명 이상이 유랑하여 사망했다.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약 60%가 여전히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과테말라 중남부와 호찌칸 인근 지역이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불일치로 인해 가난층의 접근성은 더욱 감소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 내에서의 질병 확산 속도도 높아졌다.

2. 폭력과 범죄로 인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 까지 과테말라에 있는 폭력과 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2024년에는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된 범죄와 폭력으로 인해 과테말라의 다른 지역들은 장기간에 걸쳐 경

계적으로 침체되었으며, 많은 공업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많은 과테말라인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3.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다. 과테말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종종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적인 변화나 외부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국가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환경 파괴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 파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 과테말라 시티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쓰레기처리장 근처에 약 2만여명이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5.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많은 과테말라인들이 품질이 낮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특히 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의 교회들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테말라에서의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과테말라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류 프로그램을 늘려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과테말라와 한국 교회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 여행, 문화 교류, 기술 공유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테말라교회의 리더십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실행하는 단기 선교와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교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겠지만, 해당 선교사는 과테말라의 교회 리더십과 논의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한 것이다.

2.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은 과테말라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에게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 분쟁 해결, 리더십 기술,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등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주거나 베푸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며, 상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 하라는 자세는 조심해야 한다.

3. 공동 사회 프로젝트를 개발하라. 과테말라의 취약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두 그룹 모두가 이러한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선교사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과테말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지원, 교육 및 목회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정기적인 회의,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선교사들이 현지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과테말라를 위시한 중남미의 많은 나라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배울 만한 리더십들이 많이 있다. 그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선교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하다.

5. 문화 교류 행사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과테말라와 한국 사회 간의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 교류 행사를 조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축제, 콘서트, 공동 예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 축하할 수 있다.

6. 장기적 발전 프로젝트를 함께 꿈꾸는 것이 좋겠다. 과테말라의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그램, 직업 훈련 센터,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한인선교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하지만 과테말라 교회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도를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만들라. 과테말라와 한국 교회 간의 기도 파트너십을 육성하여 서로의 기도하고 도전에 대해 기도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 지원은 두 커뮤니티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격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테말라 시티에도 성도 수가 일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들이 10여개가 된다.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를 하는 파트너가 되며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우리”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대상으로 과테말라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과테말라는 이미 “지역군벌” 같은 형태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개신교가 많이 발전한 나라이다. 이제는 과테말라 교회의 장점과 자원을 심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오늘날 과테말라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는 적극적으로 현지의 교회 리더십과 교류하며 함께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함께 복음의 사각지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기 바란다.

dr.yongcho@gmail.com

### 인/터/뷰

### 박영기 목사 (일본무목선교회 대표/신사보로성서교회담임)

지난 5월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무목교회 세미나 강의를 시작으로 5월5일 LA에 있는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 그리고 6일 남가주주둔교회에서 시드선교회가 주최한 무목교회 세미나를 인도하고 7일 캘리포니아신학교채플에서 말씀을 전한 박영기 목사(일본무목선교회 대표/신사보로성서교회 담임)는 지난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부에나파에 위치한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린 교회창립 43주년기념 특별영성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기자와는 11일(토) 오후 그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속되고 있고 무모하지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때 무모함은 존귀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사보로성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기 목사는 무목교회 사역이라는 또 다른 무모함에 도전하고 있다. 그와 대화를 하기 전에는 무모함으로 인해 번아웃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대화 속에는 무모함이 존귀함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게 됐다.

사는 “많이 힘들다”라는 말과 더불어 일본복음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대답을 했다. “첫째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된 곳입니다. 물질적인 안정과 사회 전체의 안정이 된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수고에 비해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에 개신교회가 8000

그는 복음화가 힘든 두 번째 이유를 종교 노이로제를 꼽았다.

“지난 2022년 일본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총을 맞고 살해가 된 적이 있었죠. 살해범은 한 청년이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죠. 그 어머니가 집안 재산을 모두 다 통일교에 바치고 자녀교육은 등한시한 것에 분이 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의

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통일교를 비롯한 많은 사이비 종교의 경우 기독교로 생각되어지고 있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음진리교의 경우 불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지만 사회에 해악을 가져다 준 것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무목교회는 교회건물과 목사관(사택)은 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없어



박영기 목사

고 소개했다.

또한 박영기 목사는 “한국과 미국에는 한 동네에 교회가 몇 개는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시단위에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여섯 곳이 있지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박 목사는 “이번에 미국에 와서 일본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이미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잘된 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미국에서의 여정으로 일본선교가 한 단계 전진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사역지로 향했다. ▲박영기 목사 이메일 주소: kaminopporo@hanmail.net

(박준호 기자)

### “40년째 무목교회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선교사 일본복음화가 어려운 이유, 경제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 짚아”

박 목사는 차분하면서도 힘있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일본선교사로 1985년 2월7일 파송을 받고 일본 도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9년간 사역하고 협력교단에서 후카이도 사보로에서 사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3년 10월 신사보로성서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박영기 목사.

일본선교 사역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영기 선교

사가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코로나19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한 1000개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였어요”

박 목사는 3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그중 무목교회는 모든 활동이 자연적으로 중단되다보니 더 이상 교회로 운영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토로했다.

로비자금을 받고 있고 그 대가로 통일교에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통일교인도 아니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통일교와 연관도 없고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또한 20년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음진리교에서 벌인 지하철 대량 화학 테러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

서 방치되어 있는 교회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 일본교회 목회에 뜻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무목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미 은퇴시기를 지나고 있는 목회자일지라도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무목교회 사역은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70대인 목사가 한 무목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으며 교인 한사람도 없는 곳에서 세명을 전도해서 목사 부부와 함께 다섯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어리석은 자 (눅 12:16-21) 찬 94장

어리석은 생각을 믿고 산 것이다. 여러 해 쓸 물건은 준비하여 두었지만 자신의 영원을 위한 준비는 없었다. 즉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한

인생이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것이다. 주인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 본문의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 준비를 잘 한 사람이다. 만족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산 것이다. 주인 앞에서 사는 자로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산 것이다.

#### 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눅 12:22-31) 찬 94장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실상을 보고 누리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며 자연이 살게 하는 것도 아니라 주인이 돌보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은 가장 소중한 자이기에 가장 많이 세심히 돌보신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대적으로 부터 안전하게 하신다. 육신에서 나타

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 할 것을 말씀하신다. 공중의 새가 구함으로 백합화가 창조주에게 구함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을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돌보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의 실상을 보고 누리라.

#### 수 무화과 나무의 열매 (눅 13:6-9) 찬 94장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하는 주인이다. 육신의 것을 누리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것을 누리고 사는 자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다. 생명의 것을 누림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며 누리야 한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도 열매는 이전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는 맺지 못해서 안 된다. 삼 년을 기다렸으나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았으니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것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한다. 주인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참 열매가 되며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주인의 기쁨이 되자.

#### 목 진정한 안식 (눅 13:10-16) 찬 94장

안식일이 있다면 그 날은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함을 받고 누리야 하는 것이다. 인식일 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받고 누리야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십 팔 년 동안 귀신으로 인하여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에서 안식을 받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 죄로 인하여 매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받아야 한다. 사망의 생각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벗어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눌림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야 한다.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 (눅 14:7-11) 찬 213장

육신 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의 뿌리는 죄다. 죄는 나를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타나는 생각의 근원을 확인하여 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에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하라. 자신을 사람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알고 있지 말라. 주님을 믿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만왕의 왕을 모시고 섬기는 거룩한 영광을 깨달아야 한다. 장차 왕의 보좌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왕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야 영광이 주어진다.

#### 토 구원의 잔치 (눅 14:16-20) 찬 270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잔치로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이 가로 막고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 육신의 것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찾아 왔지

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를 멸하게 하는 대적이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산다. 진리가 없는 삶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만난다.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이다.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고 누림으로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 기독교교육 (49)

####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이 0.72였다고 합니다. 출산율 0.72는 여성 100명이 72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배우자 100명을 포함하여 200명이 72명을 낳은 것입니다. 72명 중 반은 여자 반은 남자라고 가정하고 출산율도 여전히 0.72라고 가정한다면, 다음 세대 72명은 26명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 26명은 9명을 낳게 됩니다. 즉, 출산율 0.72는 머지않아 한국인이 멸종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의 에너지는 부모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작용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극과 변화는 부모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출산율의 그렇게 낮은 이유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부담,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인한 가족 내의 성 불평등,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노동문화, 한국사회의 과잉 과시와 경쟁심리 등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나열된 모든 이유에는 자녀와 자녀 양육이 짐이고 부담이라는 느낌이 스며있는 듯합니다.

자녀 양육은 유산과 전통을 남기도록 합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전통을 자녀에게 전수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을 통해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법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입니다(시편 127:3).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속재산이 그 복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과 같은 것이고, 상속은 하나님이 베푸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뜻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고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 양육은 가족 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가정이 삶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걸을 때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뒷받침해 주듯이 자녀도 부모를 지탱해 줍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은 부모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위해 부모가 자녀 양육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사회에 기여하게 합니다. 자녀는 미래의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자녀가 웃고 첫걸음을 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흡족하게 됩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은 성장과 성숙과 자아실현이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김동호牧사는 "자식의 은혜"라고 부르며 부모는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은혜"는 여파가 있어 보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 양육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깊은 유대관계를 낳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많은 경험과 추억을 공유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의지함으로써 신뢰를 행사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밀접하고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출산을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이 남성과 여성의 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혼모와 동성결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미혼여성의 체외수정시술(또는 시험관아기 시술)과 미혼자들 또는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관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혼자들 또는 동성애자들의 입양이나 혼외출산은 결코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은 개인적인 발전을 낳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통찰력으로 세상

5월 가정의 달의 빛아 모두가 자녀와 자녀 양육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 양육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감, 유대관계, 개인적인 발전, 유산과 전통 전수, 공동체 의식 형성, 사회 기여 등등. 자녀와 자녀 양육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르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4.부부의 정의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남남이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한 그릇에 밥을 비벼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시고,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섞고 마음도 섞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가 무엇인지 서로가 알지 못함이 가정문제의 단초이며, 부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첫 걸음입니다.

1. 부부는 서로 마주 보는 거울과 같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립니다. 그러니 예쁜 거울 속의 나를 보려면, 내가 예쁜 얼굴을 해야 합니다.

2. 부부는 가위이다. 부부는 두개의 날을 가진 가위입니다. 두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야 가위질이 됩니다.

3.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둘이면서 한 몸이고, 한 몸이지만 둘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주머니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주머니도 하나여야 합니다.

4. 부부는 평행선과 같다. 부부는 평생 같이 갈 수 있으므로 평행선과 같지만, 조금만 각도가 좁혀져도 그것이 갇히려 결국은 빛나가게 되므로, 부부의 도를 지키고 평생을 반려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5. 부부는 무촌이다. 부부는 한 몸이므로 너무 가까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 돌리면 남이므로 촌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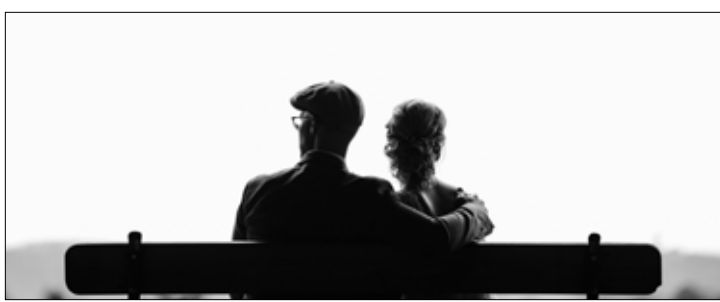
6. 부부는 반쪽과 반쪽의 만남이다. 한쪽과 한쪽의 만남인 둘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의 만남인 하나입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부부란 둘이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로써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게 부부입니다.

7. 부부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이이다. 남남의 만남이니, 어찌 다 마음에 들겠는가? 그러나 서로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8. 부부는 한쪽 발씩 묶고 걷는 자들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며 같이 걸어가야 한다.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발자국을 찍어갑니다. 자식이라는 흔적, 사랑스런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9. 부부는 피차의 실수를 한 없이 흡수하는 호수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니까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요, 좋은 아내는 소경입니다.

10. 부부는 해묵은 골동품과 같다. 해묵은 골동품이 값이 많이 나가듯, 부부도 오래 해로할수록 귀하게 여겨지며, 행복합니다.

11. 부부는 가장 귀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얼마나 소중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12. 부부는 벽에 걸린 두 꽃장식과 같다. 부부는 편안하게 각자의 색채와 모양을 하고, 조화롭게 벽에 걸려있는 두 꽃장식같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합니다.

13. 부부는 닭아 간다. 부부는 같이 늘 서로 바라보며 살아가니 닭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까만 머리카락이 하얗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염색해 주면서 살아갑니다.

14. 부부는 사랑의 반려자이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려운 일일수록 위로와 용기로 이끌어 주는 사랑의 반려자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15. 부부는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6. 부부는 약속이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평생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직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할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17. 부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같은 사이이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의미 없지만, 합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내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같은 사이입니다.

18. 부부는 변화무쌍한 먼 이방인이다. 살아오면서 말없이 눈빛만

보아도, 바라만 보아도 그저 가슴설레고, 손끝만 닿아도 짜릿한 전율이 일어나지만, 살면서 서로가 무엇인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쩌다 가슴에 비수 쫓는 말로 깊은 앙금이 쌓이다 보면, 얼음판보다 더 냉랭한게 부부입니다.

19. 부부는 사랑이다.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것.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선뜻 먹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 사람 앞으로 밀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20.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부부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헤쳐 나가고, 함께 결정해 나가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21. 부부는 얼음이다. 냉장고의 사각얼음, 언제까지 그렇게 예쁜 사각일 것 같지만, 냉장고의 온도가 맞아야 녹지 않을 수 있고 깨질 수도 있고요. 녹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22. 부부는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요 전우다. 둘이서 하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수고는 반으로 줄고 성과는 배로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부부는 삶을 영위하면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우입니다.

23. 부부는 그리움의 화신이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남끼리 만났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24.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부부이고, 곁에 있어도 그리운게 부부입니다.

25.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최초의 신적 기관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부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부루수 종족

▲ 인구 약 4,350명

▲ 종교 민족종교 70%, 복음화율 3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칼리만탄 우타라주의 시골에서 작은 마을들을 이루며 살고 있다. 자바인들이 이들의 지역까지 거주 지역을 확장하여 부루수족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가까운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 등 정령숭배를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다.

▲ 기도제목

- 1. 부루수어 성경 번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2. 성경을 통해 부루수족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의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2024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4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2.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3.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2.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3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3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4.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5. 본인 재학 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4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4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Table with 3 columns: Scholarship Name, Amount, and Recipient. Includes items like 김득렬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김득렬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2,000.00), 주형욱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etc.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4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4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중대 장로 | 총무: 안덕치 목사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천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사/방/문

### 황의영 목사 (The Three goals of SBM 대표)

## “우리 생활은 말씀의 적용 현장이 되어야”

한국에서 '말씀의 신앙화(Scripture to Faith), 신앙의 생활화(Biblically Applied Life), 생활의 문화화(Model for Encultura-

tion)'를 모토로 'SBM 메아리치는 목회'(Echoing Ministry)에 매진하고 있는 황의영 목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 LA에 자녀가 있지만, 펜데믹기간도 있었기에 오랜만에 LA를 방문했다”고 입을 여는 황의영 목사에게 요즘 근황을 묻자 “여전히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역을 소개해 주었다

현재 필리핀 소재 USA 신학교(Unied Sminario of Asia) 총장직을 맡고 있어 필리핀을 오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에도 USA 신학교 분교가 있어 강의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황의영 목사.

그는 요즘 한국의 교계에 대

해 ‘우려 반, 희망 반’이라고 말한다.

우려 하는 부분은 교회가 퇴보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필리핀도 요즘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고 황 목사는 말한다.

황 목사는 교회 부흥에 관해 “교회의 부흥은 어느 교회든 말씀의 신앙화가 제대로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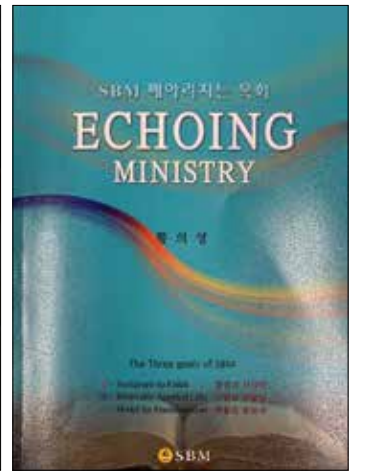
지, 신앙의 생활화가 되는지, 기독교 문화까지 만드는 저변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 신앙이 좌우 된다”며 “말씀의 신앙화 바탕이 약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위에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물질중심, 인간주의, 몰량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못지않은 위험요소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치는 3대 목표가 바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즉시 훈련 되어야 하고 우리 생활은 말씀의 적용 현

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와 생활 현장이 말씀을 삶속에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설명하며 ‘SBM 메아리치는 목회’(Echoing Ministry) 소개자를 소개했다.

이 소개자에는 ‘왜 지금 메아리치는 목회를 강력히 촉구하는가’, ‘메아리치는 목회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왜 굳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등 12개의 질문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황의영 목사



SBM 사역 책자

1961년 목회를 시작한 황목사는 1972년 도미, 1975년 미주평안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며 목회자로 교수로 사역해 오다 2년 전 성역 60주년을 맞아 은퇴했지만 쉽 없이 신학교 교수로, 세미나 강사로 신앙의 3대 목표를 외치며 세계를 순회하고 있다.

저서로는 “목회상담원리”(1970), “사모학”(1976), “교회의 직업과

리더십”(1993), “목회진단학”(2002), “크리스천의 품성교육”, “설교준비의 왕도”,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비롯해 60여권의 저서와 성역60주년 기념 논문이 있다.

SBM 사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sbmusa@hanmail.net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책소개



### 조명환 목사 (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

##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 조명환 목사가 ‘자이언캐년에서 눈물이 나다’(롬란출판사)를 출간했다.

‘사막의 오아시스’, 믿음의 벼들에게 보내는 ‘장밋빛 사랑의 편지’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본서는 지난 22년 동안 미주 한인 기독교계 소식을 전해 온 <크리스천 위클리>에 실렸던 칼럼을 엮은 책이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요, 목회자요, 또한 30여 년 넘게 기독교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저자가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소감으로, 제 2의 고향 LA에 바치는 ‘마음의 편지’이자 쓴소리 단소리의 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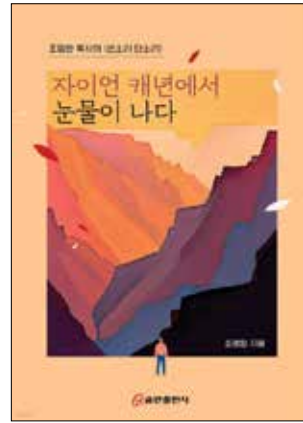
저자는 책머리에서 “미주교계에 드리리는 애정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을 떠나 시카고로, 다시 이곳 LA가 제 2의 고향이 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맛깔나게 적어내 첫 페이지를 넘기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책의 구성은 파트 1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파트 2 ‘우리 집 새 식구 헤이 구글’,

파트 3 ‘어니와 버트는 게이가 아니랍니다’로 구분해 총 100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월간목회 대표 박종구 목사는 “장밋빛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의 추천사에서 “조명환 목사의 칼럼,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삶의 여정에 지친 현대인에게 건네는 생수며, 진리에 목마른 영혼들을 위한 잠언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읽어도 시원하며 투명하다”고 치하했다. 또한 “그의 칼럼은 애정 어린 그의 사물인식의 시각은 다양한 빛깔이다. 산 정상에서 대자연의 경관을 보거나, 성지의 유적 앞에서나,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갈등 속에서나, 찬 밤 노숙자를 보는 따뜻한 눈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각시킨다. 본서는 미래를 꿈꾸는 믿음의 벼들에게 보내는 장밋빛 사랑의 편지”라며 일독을 권했다.

또한 미주문학계에 널리 알려진 이민시인은 조명환 목사에게 드리는 헌시 “글밭에 앉아”를 통해 “그대는 천상 글쟁이”라고 노래했다. 조명환 목사는 충남 서산 출



생,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풀리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수료했으며 현재 미주웨슬리언연합회 사무총장, <크리스천 위클리> 창간 발행인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의 8대 한인교회》,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아직 큰 배는 오지 않았다》, 《이름값 하는 교회》, 《미주한인교회사》등이 있다.

구입문의는 (818)624-2190로 하면 된다. 책값은 30불(송료포함). 판매대금은 미주웨슬리언연합회 후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성자 기자)

### 베드로 진서 22

## 왜?

은퇴 후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며 한 달에 한번 주일 설교와 일주일에 두번 새벽기도회를 맡았는데 신명기를 묵상할 때였다. 특히 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

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하셨다. 그때 생각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장점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고 원망하고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셨다. 말씀은 서술적이거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도 “왜?”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에 보내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효가 많

아 공급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했던 우리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는가?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왜 자비

함을 나타내시고 모른 척하시면서 끝내 가나안을 주시는가?

우리 역시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드려야 할 것 같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던지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성도라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열심이 떨어졌는가?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가? 왜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가? 왜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가?

revpeterk@hotmail.com

#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